

■ 전국 생산 60%·수출 물량 95% 점유 제주 광어양식산업 '위기'

# 완도산에 밀리고 수입 선어에 치이고...

## 4년새 출하량 비수속 매출액은 287억 감소

제주 광어양식산업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완도산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고 소비 트렌드 변화로 연어 등 외국산 선어수입이 증가하며 내수소비 둔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제주어류양식수협에 따르면 제주산 양식광어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수출물량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양식광어 출하량 및 금액은 2만3843t·3026억 4800만원이었으나 2020년 출하량

및 금액은 2만3246t·2739억8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어가당 평균 수입은 7억3200만원,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 경영비는 7억4990만원이다. 총 수입이 경영비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산 양식광어 생산원가는 kg당 9000원에서 1만1000원이지만 완도산 양식광어 생산원가는 제주보다 kg당 1000~2000원 정도 덜 들지만 출하가격은 제주와 비슷하다. 이달 제주산 양식광어 kg당 출하가격은 1만3000원, 완도산 양식광어

출하가격도 1만3000원선이다. 완도는 연중 수온이 일정한 제주와 달리 1~3월에 양식장 수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료를 주지 않고 있어 경영비 절감이 이뤄지고 있다. 완도 광어양식 A업체 대표는 "수온이 내려가면 먹이활동을 거의 중단하기 때문에 사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저수온이 끝나고 4월에 먹이를 주면 급속도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양식장 밀집 사유로 인한 양식광어 폐사어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643t에서 2019년 1만634t으로 늘었다. 지난해 8078t으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치어 입식을 줄

였기 때문이다. 양식광어 질병 확산 시 폐사율은 30~50% 상승하고 있다. 또 입맛이 다양하게 변화하며 외국산 연어 수입이 늘고도 제주광어양식업계에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외국산 연어 수입은 2016년 2억6000만달러에서 2019년 3억 60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제주지역 모업체 대표는 "옛날에는 광어양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며 "육상 양식장 폐업 지원과 광어 대체 어종 개발 및 보급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하도 철새도래지서 고병원성 AI 검출도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확진 판정"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해당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성산읍 오조리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도는 고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찰지역 내 29개 농가의 닭 78만 수, 오리 1만5000수에 대해 이종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 예찰 및 검사 강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도는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반경 3km를 특

별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 축산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울레꾼·낙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했다. 또 광역방제기, 드론, 방역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일일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2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성산 오조,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연이은 검출에 따라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농장으로서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제주교육청 성인지 예산 186억원 '썩둑'

작년 659억→올해 473억  
여성폭력근절예산 143억 ↓  
"코로나로 행사 줄어" 해명

부지정사업 25개·382억639만원 ▷  
자체선정사업 10개·29억2965만원 등이다. 정책분야별 삭감 폭을 보면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이 전년보다 143억4314만원 꺾인 247억 8801만원으로 삭감폭이 가장 컸다. 이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41억8416만원(31억여원 삭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37억7822만원(9억여원 삭감),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43억 1690만원(1억6000여만원 삭감) 등의 순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외 연수 및 행사가 취소되면서 올해 성인지 예산이 감소한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시설개선기금에 성인지 예산 약 40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1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가운데 성인지 예산은 473억3785만원으로 지난해(659억7834만원)보다 186억여원 감소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개·2억7750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59억2430만원 ▷교육



만설 한라산의 데칼코마니 맑은 날씨를 보인 19일 서귀포시 칠십리공원 연못에 만설을 이룬 한라산이 비치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희민기자

## 제자 혼육 과정에서 폭언 등 교사 2명 벌금형 선고 유예

제주를 혼육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한 중학교 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중학교 교사 A(40)씨와 B(57)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제주 시내 모 중학교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던 C(12)군이 친구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장난을 치자 "뒤편하는 짓이나, 죽고 싶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 학생의 목살을 잡아 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 학생을 향해 책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기자

## "뭔가 흔들림 느꼈다"

19일 새벽 중국 4.6 지진 제주도도 경험담 이어져  
19일 새벽 중국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지진을 느꼈다는 얘기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은 한반도와 200km나 떨어져 있지만 제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글이 심수게 올라왔다.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뭔가 흔들림을 느꼈다. 13층인데 무섭다" "나만 느끼게 아니었다" "잠이 안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19가 접수한 지진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동을 사뭇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제주에서 지진동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시 품위손상 의혹 국장 직위해제

도감사위 조사후 징계 결정  
제주시 A국장이 공무원 품위손상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 제주시는 18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A국장을 대상으로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 시작을 통보함에 따라 19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A국장은 성희롱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

려졌다. 지방공무원법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위손상 유형은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도박, 강도, 사기, 폭행 등이다. A국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